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일생을 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성경말씀: 벰전1:14-17

베드로전서 대상: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전서의 주제: 고통과 고난(벰전2:21)
베드로의 임무(요21):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구원 받았으나 로마 치하에서 고생하며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한다(6-7).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다(13).

그러면서 이전 정욕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한다(14-16).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일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면 된다(17).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전에 알던 사랑의 하나님과는 반대, 이것을 바로 알아야 개인과 교회 국가가 변영할 수 있다. < >, 거룩함, 두려움, 하나님 설명

1.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믿음은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그분으로부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좋은 효과: 영원한 생명, 바르게 섬기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영육의 축복

현대인들이 아는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심판), 공의와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애완전이나 친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면 큰코다친다.

2.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14-16)

14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의 정욕들을 따르지 말라. 헛된 말, 거짓말, 술 취하기, 음행, 비방, 소문 퍼뜨리기, 파당,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롬12:2). 그리스도인의 특징: 생각해야 한다.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슬프게 하는가?

15-16절: 14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거룩해야 한다. 어디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현대 교회는 거룩함을 잃고 있고 그것을 사랑을 대체해 버렸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거룩하게 경배하여야 한다(시29:2).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이다.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저속한 음악, 가사, 말, 입신, 방언 등을 버려야 한다.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체 하지 말라. 예배드리고 성경공부 할 때만 거룩한 체 하지 말라.

교제 시간에, 가정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구분된 말과 행동이 나와야 한다.

“교회 소풍을 가는데 소주 박스를 싣고 간다.” “구역 모임 후 술자리, 노래방”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16)

왜 거룩함을 강조하는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히12:14).

영혼의 자유, 사랑, 은혜를 그대로 놔두면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은 기차와 같다. 사랑과 자유의 엔진, 이 기차가 있기에 모든 것이 편하다. 어디든지 간다. 짐을 실어 나른다. 경치를 본다. 쉰다. 그런데 이 기차가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 사람을 죽인다.

반드시 레일 위에서 다녀야 한다. 그 레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모든 일이 질서 있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경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말, 복장, 행동, 교제. 교회 밖에서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와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교회가 수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며 그런 식의 거룩하지 못한 경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잠28:9). 그러므로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17)

17절에 답이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한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는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지난 일 주일, 온 나라가 조국이라는 사람의 비리 행적으로 난리, 조국의 부모, 형제, 아내, 아들 딸, 주변 지인들의 각종 비리, 가족 사기단이라 불림, 그 많은 조작, 비리에도 전혀 사과하거나 사퇴하려 하지 않는다. 위선자 중의 위선자,

자, 그런데 위선의 극치를 보고 불평하고 지적만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수십 건의 위법, 수사가 시작되면 수도 없이 나올 것이다. 바로 우리의 행적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신다. 동기까지 불신자들 천년왕국 이후 희고 큰 왕좌 심판(계20:11-15), 신자들 그리스도의 심판석(고후5:10-11)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한다.

두려움(17)

두렵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며 마음이 불안하다. 두려움(400), 하나님의 두려움(8), 주의 두려움(30)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의미로 사용된다.

1.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들(마10:28; 히10:31)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것 믿음을 가지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요일4:17-18; 눅1:50).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지면 두려워한다. 에스더기,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드러나자 주동자 하만은 두려워한다. 결국 교수대에 달리게 된다.
2.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잠1:7):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하나님에 대한 오해(신10:12-13), 핵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를 갖추어 대접하는 것(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것), 불신자들의 특성(롬1);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지 않고 무시한다. 멸시한다.

두려움의 효과(17)

1.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행이 이루어진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사람 죽인 소식, 머리를 자르고 사지를 자르는 악한 일, 창20,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감, 하나님의 개입, 아브라함이 대담함(20:10-11), 조국 사태, 박근혜 대통령 사태 등 사회와 국가의 몰락 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국가 자체가 살 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 박탈, 그래서 반대해야 한다. 사회주의 헌법 개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내년 총선에서 저지해야 한다. 국민들이 살 길, 기독교인들이 살 길
2.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개인이 행복하게 변영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솔로몬, 최고의 지혜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다가 죽음, 물론 회개했지만 왕국의 분열, 요셉, 젊은 나이에 이집트로 끌려가 보디발의 종이 됨, 그러나 그는 주인과 그의 아내 등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함께 늙자는 그의 아내의 간청을 뿌리치면서 한 그의 말(창 39:7-10),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9)
3.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교회도 성장한다(행9:31). 사랑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바르게 성장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예의 있게 대하게 된다. 교회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늘어난다, 교회 사역이 확장된다. 이것이 교회 성장의 요인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육 과정,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교회 발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결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 일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보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